

고바이오랩, 대사질환 치료 소재 러시아 특허 등록

- ▶ 균주 및 균주 유래 타깃 단백질의 GLP-1 발현 유도 및 갈색지방 활성화 증가 확인
- ▶ 내당능 장애 및 당뇨 등 대사성 질환 치료제로 개발 예정

<2023-03-30>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전문기업 고바이오랩(348150)이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대사질환 치료 소재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(Akkermansia muciniphila) KBL983의 러시아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30일 밝혔다.

KBL983 균주 및 균주 유래 타깃 단백질은 주요한 대사 관련 호르몬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(glucagon-like peptide-1) 발현을 유도하고 갈색지방 활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. 회사측은 이 단백질은 내당능 장애, 당뇨, 동맥경화, 고지혈증 및 지방간 등 다양한 대사성 질환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.

특히 KBL983은, 다양한 대사성 질환들의 특성에 맞춰 생균 또는 생균이 분비하는 물질 등을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. 실제로 고바이오랩은 이러한 KBL983의 효능 및 기전을 밝혀 관련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'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(Nature Microbiology)'에 게재했으며, 한국 및 다수의 해외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.

고바이오랩 관계자는 "본 특허 등록은 핵심 대사성 질환 치료 소재인 KBL983의 글로벌 권리 범위를 확장해 나아가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"이라며 "향후 KBL983 균주를 기반으로 한 대사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낼 것"이라고 밝혔다.